

朝鮮王朝實錄抄 滿蒙史料

滿蒙史의 研究는 우리 文化와의 연계성과 함께 상당히 필요한 事이라고 모두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方面의 研究를 뒷받침하여 出史料의 發露이 극히 적은 범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 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滿蒙史研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史料는 물론 『明實錄』과 『朝鮮王朝實錄』을 備 놓을 수 없다. 이 두 資料는 이 지역은 물론 이 지역과 韓國 及 中國과의 關係를 이해하는데 가장 本이 되는 資料라 할 수 있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이 갖고 있는 資料는 그 어느 資料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나 滿蒙史研究를 위하여 방대한 量의 朝鮮王朝實錄을 섭렵한다는 것은 研究者에게 과중한 努力과 時間의 낭비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편을 덜고 研究者에게 보다 더 좋은 研究業績을 기하기 위하여는 史料集의 정리 출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비록 朝鮮王朝實錄抄 中國史料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호 보완하여 주는 바가 있어 本社에서는 이를 中國史料와 함께 影印출판, 研究者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다.

一九八二年三月

凡例

- 一、本書는 景印 太白山史庫本 李朝實錄에서 明代의 만주와 몽고에 관한 記錄을 抄錄 編纂한 것이다.
- 二、明代의 만주, 몽고에 관한 同實錄의 기사를 광범위하게 거의 빠짐없이 이를 거두었다. 다만, 몽고 및 몽고 민족에 관한 기사는 아주 적으므로 특별히 編은 가리지 아니하였다.
- 一、明代의 만주와 그 주변에 있어서의 만주민족의 활동 事蹟 社會習俗 등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을 網羅하고, 여기에 李朝와 明朝의 女眞민족에 대한 정치·군사·경제상의 시책과 시설을 전하는 기사와 아울러 遼東과 조선과의 交涉에 관한 사항을 관련시켰다. 그리하여 이런 사항중 오로지 朝鮮 자체에 관한 것은 특히 머리에 「參」자를 붙여 참고로 하는 뜻을 표시하고, 또 활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만주 본위의 기사와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다.
- 一、索引 一卷을 人名, 地名을 찾아보기에 편리케 하였다.
- 一、원본에는 異字, 俗字가 매우 많으며 字體 또한 한들이 아닌데 그것은 오로지 인쇄 제작할 때에 新舊의 鑄字를 섞어서 쓴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중요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상식적으로 처리하였다.
- 一、俗字, 異字의 대부분은 正字로 고치었다. 그러나, 너더 원본대로 따른 것도 있다.
- 一、正俗 二體 이상을 아울러 쓴 것은 원칙적으로 正字로 통일 一貫하였다. 潛潛·潛·潛을 潛으로 통일한 따위이다. 그러나 원본의 舊를 보존한 것도 있다.

다. 俗字·異字로써 一貫한 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답습하였다. 贅歎 따위. 그러나, 예외도 있다.

一、원본에서 불림없이 誤字·脫字·衍字·倒錯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대로 답습해 쓰고 그에 그 교정 정오를 배고
었다. 다만, 그것을 의문체로 다룬 것은 편자의 신중과 겸양에서, 독단으로 여겨지기를 피하고 싶어서 이가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誤植인지, 의식적으로 한 慣用(音通을 포함)인지 당장 결정하기 곤란한 것에는 여
(一)·(二)를 붙였다.

二、記事에 관계되는 干支(日次)를 掲出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가지 구별을 두어 원본의 체재를 바르게 전하
도록 하였다.

가.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 그대로이다. 즉, 원본에서 記事 머리에 干支를 掲出한 경우이다.

나. 干支○(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기사 머리에 간지를 掲出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관계 간지가 분명할 경우이다. 즉, 先行의
는 기사의 머리에 掲出한 干支와 後續되는 기사의 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없을 때에는, 이 干支들 사이
에 실린 기사는 모두 先行의 干支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여 무방하다.

다. 干支_{行先}——干支_{續後}○(本文)

이것은 원본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기사 머리에 干支를 掲出하지 않고, 또 관계되어야 할 干支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다. 즉, 先行干支와 後續干支 사이에 日次の 간극이 있을 때는 이 干支들 사이에 수록된

기사에 관계되는 干支는 일단 의문시함을 慎重을 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특히 「나」와 구별하여 일본의 재를 보존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干支에 관계되는 들이 상의 기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干支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다음 기사에 만 같은 干支를 出하여 干支○〔本文〕으로 하였다.

一九八二年 三月

景仁文化社

目次

仁祖實錄

仁祖元年(天啓三年).....	三
仁祖二年(天啓四年).....	三
仁祖三年(天啓五年).....	三
仁祖四年(天啓六年).....	四
仁祖五年(天啓七年).....	六
仁祖六年(崇禎元年).....	一七
仁祖七年(崇禎二年).....	二〇六
仁祖八年(崇禎三年).....	二八

目次

一

仁祖九年(崇禎四年).....	三三四
仁祖十年(崇禎五年).....	三五五
仁祖十一年(崇禎六年).....	二六九
仁祖十二年(崇禎七年).....	二九七
仁祖十三年(崇禎八年).....	三〇七
仁祖十四年(崇禎九年).....	三二四
仁祖十五年(崇禎十年).....	三五七
仁祖十六年(崇禎十一年).....	四〇四
仁祖十七年(崇禎十二年).....	四一六
仁祖十八年(崇禎十三年).....	四三三
仁祖十九年(崇禎十四年).....	四五六
仁祖二十年(崇禎十五年).....	四七一

仁祖二十一年(崇禎十六年).....	四八二
仁祖二十二年(崇禎十七年).....	五〇三

目次

仁祖大王實錄

仁祖實錄 卷一

元年三月

〔參〕○丁巳備邊司啓曰今日鼎革之初事多未遑而西邊之事不可不急先料理伊賊倘來越邊接語則當云兩國曾無讐怨彼疆我界不須攙越擾害各守封疆可也佯若動兵來侵我亦當以干戈從事至於唐將來住我境遼民越來投命於唐將皆非我國指揮你不可以此執言如是措辭荅送其接待等事今姑一依前例爲之今後凡係問荅之事一一告知毛將切勿隱諱爲當請以此意下諭于都元帥贊畫使平安監司義州府尹從之

元年四月

〔參〕○辛未上引見都元帥張晚於明光殿上曰今見唐將以協力討賊爲言

而兵事無形何以爲之晚曰大亂之後事勢固然但天朝師期尚遠一二年休息民生之後則民亦知不得已之舉必樂爲之用矣今聖算已定廟謨已決臣只許一死敢不盡瘁乎但以將才乏絕爲慮矣副元帥有闕而西路凋殘厨傳有弊若有緩急當臨時請之李适李曙中擇遣爲當上曰舉其優者偕往無妨晚曰軍官欲從略帶去而幕下多有褊裨則風采自別故不得已多率至於五百餘名第以接濟爲慮矣上曰卽今中原形勢其能出兵而討賊耶晚曰中原非但形勢孤弱亦似奪魄與我國壬辰畏倭同矣上曰倘與中原協力討賊則度用幾許兵晚曰臣之意則非十萬不可也上曰我國辦得十萬勢甚未易矣晚曰十萬雖不易得非五萬則不可上曰邊上將官率多匪人剝割無藝公私赤立必盡去貪官污吏事可爲矣晚曰貪官污吏朝廷必不饒貸臣亦受命下去敢不詳察以處乎上曰必須詳慎處之若一人枉被罪則十人當不服不可不慎上又曰他道軍兵年年徵發賊未來而國中先弊自今使本道之兵守城他道則臨

急調用如何晚曰臣亦有此意相議于領相則領相亦以爲然臣當下去與韓浚謙相議善處而李時發久在邊上必有揣摩亦當相與議處矣上曰賊勢如何晚曰有鸞鳥斂翼之形矣上曰有將犯我國之勢耶晚曰賊方銳意犯關何暇東搶似無近憂矣上曰予意聞我國消息亦必忌憚矣晚曰兵家以間諜爲上臣欲募得假獐伶俐者偵探賊中而不可不先告於毛將矣上曰卿言是矣告於毛將得剃漢厚待用之可矣晚曰我國善華語者剃其髮偕剃漢偵探而懸賞購募則必有樂往之人矣

○壬午上接見毛文龍差官時可達於明政殿上曰敝邦當與天朝協力討虜已拜元帥明當啓行使卽往詣督府奉議軍務矣若有軍機可議之事今日願爲詳教差官曰魚皮獐子事都督使俺奉議而來矣上曰所謂魚皮何地方耶差官曰魚皮獐子在中國東北所謂忽溫也上曰忽溫盡爲降附於奴賊未知有餘存者乎差官曰忽溫

雖降附奴賊而餘種數十餘戶合屯一處願爲歸附故欲招集行計於虜中矣上曰招集異類倘有漏洩軍機之患則抑恐無益而有害矣差官曰賢王睿算誠是矣當歸告摠帥也

〔參〕○癸未上幸慕華館送都元帥張晚〔下略〕

仁祖實錄 卷二

元年六月

○朔庚申孫軍門移咨朝廷羈縻聯絡作我援助云云備局以弊司方出都元帥調兵運餉以俟軍門之令協力毛督恢復遼左之意荅之

○辛未上晝講論語于文政殿略中時柳公亮自毛營還仍令入侍上問曰都督今則無有疑阻之意耶公亮對曰臣留都督門下一日別無致疑之色初因一時讒言發怒而非有深怨也我以誠意待之彼豈有不信之理乎以其兵力觀之似無勦胡之勢張晚去時結陣以見之而軍皆疲劣雖或見小利而動恐難舉大事耳上曰流民之來者幾許公亮曰數十里間流民盈路物貨販賣無異遼東矣上曰軍

兵器械比我國如何公亮曰兵器只於杖頭插鐵不比我國之精利矣蓋都督爲人只是一慷慨人自知與彼賊不相敵萬無出戰之理不過挾我國之勢爲山海關之殿後耳

○壬午咸鏡道六鎮藩胡等盡數撤入於深處情形異前本道饑疫亦甚監司李弘胄馳啓請令廟堂預講防備之策

元年七月

乙未○都元帥張晚馳啓言近接義州之報毛將已爲渡江游騎出沒於鳳凰湯站之間日日放砲以爲聲勢又聞易承惠等已自上流渡江其軍之單弱臣已目見其所聲言必曰合朝鮮之兵而乘虛入遼彼虎狼之移怒斷可知矣必將分兵侵我欲絕議後之計而兩西儲糧罄竭如洗雖欲收合軍卒添入邊上而無可饋之糧下道運餉無一缸來到者軍兵時未整頓器械未及修造將領未得其人督令

諸道餉臣催促舡運防秋諸道之兵依臣前啓亦宜早賜回下俾無
緩不及事之悔

元年八月

〔參〕○乙亥副元帥李适拜辭〔略下〕

仁祖元年 癸亥（天啓三年）

仁祖實錄 卷三

元年九月

〔參〕辛丑○備邊司啓曰義州人南香等冒死應募剃髮變服偵探虜穴賊中情形大略探知本道雖已賞給而渠等今方上來自朝家不可不施賞以爲後人之勸上命兵曹論賞仍賜戰馬軍裝

元年十月

丙戌○毛都督設木柵置營鎮於蛇浦爲守冬之所接伴使李尙吉啓聞

元年閏十月

辛亥○上晝講大學于文政殿〔中略〕知事李廷龜曰目今江水將合西事萬分可憂而自前我國不能偵探未知敵情與賊對壘朝夕待變